2010 남아공 월드컵

북한의 '주체축구'…"서프라이즈!"

숫자로 본 월드컵 11 2002년 한국 대 터키전에서 터키의 하칸 슈퀴르가 홍명보에게 볼을 빼앗아 사상 최단시간인 11초 만에 득점. 독일이 보유한 최다 4강 진출 기록.

세계가 놀란 골! 북한의 지윤남(왼쪽)이 16일(한국시간) 요하네스버그 엘리스 파크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G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0-2로 뒤지던 후반 44분 만회골을 터뜨리고 있다. 요하네스버그(남아공) | 로이터연합

강철체력 벌떼수비…지고도 이긴 北

브라질전을 통해 본 북한축구

일인당 평균 8.644km 놀라운 활동량
브라질 선수보다 1km이상 더 움직여
개인기 열세 팀플레이·체력으로 극복

꼭 43년 10개월 만에 베일을 벗고 모습을 드러낸 북한 축구. 최약체로 분류됐던 그들이 세계 최강이라 자부하던 브라질의 코를 납작하게 했다. 비록 원했던 승점은 따지 못했어도 충분히 아름다웠고, 후회 없는 90분을 보냈다.

"축구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또 (세계를 놀라게 할)그럴 용기가 있다"고 당찬 출사표를 던졌던 김정훈 감독의 북한 축구를 기록을 통해 파헤쳐본다.

●브라질 놀라게 한 효율 축구

슈팅수 26대11. 볼 점유율 63대37.

국제축구연맹(FIFA)이 내놓은 분석이다. 여기서 보는 것처럼 브라질이 모든 면에서 앞섰다.

하지만 호비뉴-카카-파비아누 등 초호화 공격진을 구축한 브라질은 고작(?) 2골밖에 뽑지 못했다. 10개의 슛이 유효 기록으로 집계됐지만 골문으로 향한 북한의 슛은 3차례에 불과했다. 득점 확률에서 북한이 33%로 20%의 브라질을 오히려 누른 셈.

그렇다고 북한이 마냥 디펜스에만 초점을 둔 것은 아니었다. 정상적인 경기 운영을 했고, 페어플레이를 했다. 어지간하면 휘슬을 잘 불지 않는 헝가리 출신 빅토르 카사이 주심의 성향 탓도 있으나 흐름이 끊기는 경우가 없었다. 파울 숫자도 양 팀이 합쳐 19개였고, 북한은 10개로 브라질보다 한 개 많았을 뿐이었다.

유일하게 다소 큰 폭의 차이를 낸 부분은 패스의 정확도. 북한이 크로스에서 33%(6개 중 2회 성공)로 16%(31개 중 5회 성공)의 상대를 앞섰을 뿐, 전체 정확도는 715개 패스 중 595개의 볼 배급에 성공한 브라질(83%)이 362개 중 239개(66%)를 배달한 북한에 앞섰다.

북한-브라질 기록 (자료 FIFA)

북한	구분	브라질
11개(3개)	전체 슛(유효 슛)	26개(10개)
10회	파울수	9회
37%	볼 점유율	63%
1개	오프사이드	3개
3개	코너킥	7개
66%	패스 성공률	83%
8.644km(103.729km)	평균 주파거리(전체 비거리)	7.386km(103.404km)
22km/h	평균 스피드	24km/h

●지칠 줄 모르는 체력

천리마 축구단. 오래 전부터 북한 축구를 지칭하는 용어이다. 객관적인 전력상 열세를 북한은 '한 걸음 더 뛰는' 것으로 극복했다. 전체 비거리가 이를 입증한다. 화려한 개인기와 빠른 스피드(평균 시속 24km)로 무장한 브라질은 그라운드를 103.404km 누볐으나 북한은 103.729km를 뛰었다. 북한 선수 평균 속도는 시속 22km였다.

북한은 선수 일인당 평균 8.644km를 뛰었다. 브라질이 고작 7.386km를 누볐으니 1km 이상을 더 많이 움직였다는 계산이 나온다.

끊임없이 괴롭히고 따라붙고, 달려드는 특유의 플레이가 입증되는 대목. 10km를 주파한 선수들도 북한은 안영학, 박남철, 차정혁, 홍영조 등 4명이나 되지만 브라질은 수비형 미드필더 지우베르투 다 실바와 왼쪽 풀백 바스토스 등 2명에 불과해 아쉬움을 남겼다.

남장현 기자 yoshike3@donga.com

창보다 매서운 '북한의 방패'

둥가 감독 "완벽한 압박 수비" 극찬

'완벽한 압박 수비.'

G조 조별리그 1차전에서 북한에 2-1 진땀 승을 거둔 브라질 둥가 감독(사진)이 북한의 수비를 극찬했다. 둥가 감독은 경기 직후 가진 공식 기자회견에서 "공격적인 팀과 맞붙을 때는 공간이 많이 생겨 경기를 쉽게 풀어갈 수 있지만 수비로 맞선 팀과 경기는 훨씬 어렵다"고 경기 총평을 했다. 이어 "경기를 본 사람이라면 알겠지만 공간을 허용하지 않는 북한의 압박 수비는 거의 완벽에 가까웠다"고 북한을 치켜세웠다.

둥가 감독의 평가처럼 북한은 전반전 세계 최강 공격력을 자랑하는 브라질을 압박하며 완벽하게 틀어막았다. 창과 방패의 싸움에서 방패의 우수성을 보여줬다. 후반전에는 매서운 공격력까지 보여줬다. 이에 대해 둥가 감독은 "후반 도중 북한의 공격력이 살아난다 싶어 니우마르를 투입했다"고 설명했다.

이길상 기자 juna109@donga.com

44년만에 월드컵…北 응원단 "신났습네다"

윤태석 기자의 남아공 24시

"브라질도 쩔쩔 매는구만." "노란 딱지 한 번 안 주네?"

북한-브라질의 2010남아공월드컵 G조 1차전이 벌어진 16일(한국시간) 요하네스버그 엘리스파크 스타디움. '영원한 우승 후보' 브라질과 44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 등장한 북한의 맞대결답게 경기장은 5만 1000명이 뿜어내는 열기로 가득했다.

물론 대다수는 브라질 팬들이었다. 이들은 노란색 티셔츠를 입고 부부젤라를 불며 월드컵 6회 우승을 향한 상쾌한 스타트를 기원했다. 수적으로는 열세였지만 북한 팬들의 응원도 신명났다. 본부석 중앙 2층 좌석에 붉은색 티셔츠를 맞춰 입은 50여 명의 응원단은 90분 내내 나무로 만든 캐스터네츠를 치며 "이겨라" "이겨라"를 외쳤다. 이들은 모두 평양 출신으로 평양-베이징-홍콩을 거쳐 남아공으로 먼 원정을 떠나왔다. 응원단 이름을 물으니 "19차 월드컵 응원단"이라고 했다.

북한이 예상외의 선전을 펼치며 전반을 0-0으로 마치자 응원단은 후끈 달아올랐다. 신창일 씨는 "세계 속에 뛰어든 기분입니다. 골은 안 났지만 우리 선수들도 만만치 않다는 것을 보여줬습니다. 승부는 두고 봐야합니다"고 말했다.

남아공에 와서도 매번 극비행보를 거듭한 북한대표팀과 달리 응원단은 개방적이었다. 이들을 신기한 듯 바라보는 외국인 관중들과 어깨동무를 하고 사진을 찍는 등 축제를 즐기는 모습이었다.

그러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다. 후반 들어 마이콩(인터 밀란)과 엘라누(갈라타사라이)에게 연속 골을 내주자 잠시 분위기가 가라앉았다. 그러나 종료 직전 지윤남이 상대 왼쪽을 파고들어 기어이 한 골을 터뜨리자 마치 승리를 확정짓기라도 한 듯 떠나갈 듯한 함성이 일제히 터져 나왔다. 북한이 44년 만에 월드컵 무대에서 맛본 역사적인 골이었다. 결국 경기는 북한의 1-2 패배로 마무리됐다. 선전을 했다는 안팎의 평에도 불구하고 북한 선수들은 아쉬움을 감추지 못했다. 지윤남은 국내 취재진의 인터뷰 요청을 뿌리치고 그대로 믹스트존을 빠져나갔다. 안영학은 "브라질은 예상대로 강했다. 그러나 우리도 잘 싸웠다. 전반에 좋은 페이스였는데 후반에 실점을 한 게 아쉽다"고 말했다.

요하네스버그 | sportic@donga.com

편집 | 민성기 기자 min3654@donga.com

평양에서 온 북한 응원단이 16일(한국시간) 브라질과의 조별리그 1차전에서 북한을 열정적으로 응원하고 있다. 요하네스버그(남아공) | 연합뉴스

월드컵 생생 메신저

본사 | 최현길 축구팀장 choihg2@hotmail.com
김도헌 기자 gjsehrla@hotmail.com
프리토리아 | 최용석 기자 gtyong@hotmail.com
요하네스버그 | 윤태석 기자 sportic@hotmail.com

요하네스버그 찬바람만 쌩쌩~ 아프리카가 이렇게 추울줄이야

●정대세의 월드컵 첫경험 '아주 혼났습니다'

최현길 : 한국엔 정대세가 대세다. 경기장 갔던 태석이는 어떻게 봤니.

윤태석 : 사실 이 정도까지 난리가 난 줄은 몰랐어요. 예전에 한국과 북한이 월드컵 예선을 할 때였나요, 그 때도 정대세가 눈물을 보여 화제가 된 적이 있는데.

김도헌 : 그게 남자 눈물의 힘이지. 다들 그 눈물에 찡했던 모양이다.

최용석 : 근데 경기를 보니까 대세 많이 긴장한 것 같던데, 한국하고 할 때 안 하던 실수도 좀 하더라고요.

윤태석 : 실수가 많았죠. 수비에 밀려 공도 많이 뺏기고. 끝나고 믹스트존에서 외신기자들에게 둘러 쌓였는데요, 첫 마디가 '아주 혼났습니다' 였어요.

최용석 : 첫 경험이라 그랬나? ㅋ

최현길 : 믹스트존에서 인상이나 등 풍경을 좀 더 설명해주련.

윤태석 : 북한 선수들은 하나같이 인상 쓰며 믹스트존을 통과했구요. 안영학 정대세 박남철만 남아서 이야기를 했죠. 골을 넣은 지윤남을 한국 취재진들이 쫓아가 한 마디만 해달라고 거의 사정했지만 냉정하게 나가버렸습니다.

최용석 : 역시 아직 우리는 남인가봐.

최현길 : 북한 관련한 현지 분위기나 언론 반응은 어때.

윤태석 : 여기서도 북한이 꽤 화제가 되고 있어요. 그런데 워낙 이야기를 잘 안 하니.

최용석 : 인터뷰도 제한적으로 실시하니까요. 그래서 공식 인터뷰 때 한 기자가 북한 미디어 담당관에게 항의 비슷한 투로 왜 FIFA는 북한에만 유독 관대하냐? 그들이 FIFA 규정에 있는 미디어 참여 횟수를 다 이행했냐? 이런 질문까지 나왔습니다. 근데 FIFA는 팀 편이니까. 브라질전 TV를 보니까 여기도 정말 많이들 놀라는 모습이에요. 북한의 강력한 수비를 집중 조명하더라구요.

●쌀쌀한 날씨…아프리카에도 서리가 내린다고?

최현길: 대표팀 캠프 소식은.

윤태석: 날씨가 화두가 될 듯해요. 어제 루스텐버그를 떠날 때도 갑자기 바람이 많이 불어 쌀쌀했는데 여기 요하네스버그는 완전한 겨울이에요. 대표팀 훈련장엔 방한복도 등장했죠.

최용석 : 좀 더 있으면 서리도 내린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김도헌 : 아프리카에 서리라? 눈도 내리나 혹시?

최용석 : 남아공에도 서리 내린데요. 낯설죠? 저도 듣고 깜짝 놀랐어요. 몇 년 전엔 눈도 내렸는데, 그때 난리났답니다.

최현길 : 그나마 경기 시간이 한 낮이라 다행이지만, 좌우지간 내일 날씨가 우리한테 유리해야할텐데.

윤태석 : 저도 한국에서 겨울점퍼 가져올 때는 무거워서 불평이었는데 어제 아주 유용하게 잘 써먹었어요.

김도헌 : 잘 했다. 신혼인데 몸 챙겨야지.

윤태석 : ㅋㅋ. 낮에는 바람만 안 불면 그리 춥진 않은데. 어제는 하루 종일 차가운 바람이 많이 불었습니다. 경기날도 찬 바람이 많이 불면 무지 추울 수도 있을 듯해요. 선수들에게 날씨나 잔디 고지대 등등에 대해 물을 때마다 하나같이 "그런 것에 영향 받으면 선수도 아니다. 관계 없다" 고 자신을 해대니.

최현길 : 듣기는, 또 보기는 좋네. 희망을 가지자.

●허 감독 두골 넥타이…아르헨전도 두골 부탁해요

최현길 : 아르헨티나는 좀 독특하더만. 당일 경기장으로 이동하는 것은 좀 이례적인데 뭔 사연이 있니.

최용석 : 사연보다는 이동 거리가 멀지 않아서 가능한거에요. FIFA 규정에도 경기당일 150km 이상 밖에서 경기장으로 들어오는 것을 금지하고 있는데 프리토리아부터 요하네스버그 사커시티까지 거리가 멀지 않거든요. 차로 40~50분 거리, 그래서 그렇게 결정한 듯해요. 게다가 아르헨티나는 자기네 습성대로 경기 전날 경기장 훈련을 하지 않으니까요.

김도헌 : 경기장은 밟아봐야하는 거 아냐?

최용석 : 굳이 미리 이동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들은 경기 날 처음으로 밟아야 새로운 기분으로 경기를 하고 그래야 결과가 좋다는 일종의 징크스 같은게 있는거죠.

윤태석 : 이번 대결은 좋은 징크스 대 좋은 징크스 대결인데요. 마라도나는 훈련장에서 기자회견, 허 감독은 두골 넥타이.

최현길 : 다 맞으면 결과는 어떻게 되지? 무승부?

최용석 : 2-2 네.

윤태석 : 우리로선 무승부도 괜찮지. ㅎㅎ